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2. No. 1 (2025) pp.001~016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여행 은유와 시대적 함의

오 수 빈
(University of Arizona)

Oh, Subin. 2025. The Metaphor of Journey in the Inaugural Addresses of South Korean Presidents and Its Historical Implications.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2*(1), 1-16.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metaphor "Politics is a journey" in the inaugural addresses of South Korean presidents from Kim Young-sam (1993) to Lee Jae-myung (2025). Using a cognitive linguistics framework, the study analyzes how this metaphor is utilized to shape political discourse within the specific context of presidential inaugurations, which are symbolic and performative texts that outline national visions and policy directions. The metaphor of "politics as a journey" is explored through its key elements— 'traveler' (the political subjects: the president, the nation, and the people), 'destination' (political goals), 'path' (policies and strategies), 'obstacles' (issues and crises), and 'movement' (progress and reform).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metaphor remains consistent, it is dynamically recontextualized to reflect the unique political and social challenges of each era. This study demonstrates how metaphors effectively frame complex political agendas and national goals, offering both persuasive and strategic tools in political communication.

Key Words: Conceptual Metaphor, Political Discourse, Cognitive Linguistics, Presidential Inaugurations, Political Communication

1. 들어가기

정치는 공익을 증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핵심 영역으로, 언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을 넘어 권력을 구성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정치인들은 연설을 통해 정책을 표명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며, 은유(metaphor)는 복잡한 정치 이슈를 구체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전략으로 사용된다(Charteris-Black, 2011; Lakoff & Johnson, 1980; Mio et al., 2005). 특히 대통령 취임사는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담화로, 이때 선택된 은유는 정권의 가치와 전략을 나타낸다. 특히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정치적 목표를 '목적지'로, 국가·국민을 '여행자'로, 정책을 '길' 혹은 '장애물'로 상정하며, '함께 전진하는 국가'라는 메시지를 역동적으로 전달한다(권연진, 2018).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국내외에서 중요한 정치 담화 분석 주제로 다뤄졌으나, 국내의 특정 정치 담화에서 이 은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김영삼(1993)부터 이재명(2025)까지 8명의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하여,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의 발현 양상과 시대별 변화를 고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임사에서 은유가 사용되는 방식과 그 정치적 효과를 밝히고, 둘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은유의 변주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며, 셋째,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서 정치 담화의 이해와 분석에 기여한다.

분석 대상은 8명의 대통령 취임사 전문이며, 이를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은유가 한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정치적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식을 밝혀,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시대적 변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

인지언어학의 발달로 은유에 대한 관점은 수사학적 기교에서 인지적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었다. Lakoff and Johnson(1980)은 "은유의 본질은 한 가지 사물을 다른 사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은유를 단순한 언어적

장식이 아니라 인간 사고의 보편적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즉 하나의 목표 영역(target domain)을 보다 구체적인 근원 영역(source domain)을 통해 개념화하는 것이 은유의 핵심이며, 이때 두 개념 영역 사이에는 체계적인 사상 관계(mapping)가 성립한다. 예컨대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에서, 논쟁 참여자는 전쟁의 적에, 상대방 논리를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는 행위에 각각 대응된다. 이렇듯 은유적 표현을 이해한다는 것은 두 영역 간의 대응을 이해한다는 뜻과 같다.

인지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은유가 일상 언어 전반에 퍼져 있다고 보고, Lakoff and Johnson(1980)이 제시한 구조적 은유, 방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등을 토대로 은유가 어떻게 인간의 인지와 경험에 작용하는지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결론적으로, 개념적 은유 이론이란 추상적 개념(목표 영역)을 구체적 개념(근원 영역)을 통해 이해・경험하는 인지 과정을 말하며, 두 영역 간의 체계적 대응이 전제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정치 담화와 같은 설득적・공적 담화에서 은유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근간을 제공한다.

2.2. 정치 담화에서의 은유

정치 담화에서 은유는 추상적 이슈를 쉽게 이해하게 돕고, 정치적 목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작용한다(Charteris-Black, 2004; Lakoff, 2004). 특히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국가가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관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설정함으로써 희망적 메시지를 강화한다(Lakoff & Johnson, 1980; Dávid & Furkó, 2016). Mio et al.(2005)은 은유가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의 연설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사는 정치적 목표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담화로, 은유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Campbell & Jamieson, 1985). Svetonosova (2022)는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빈번하게 사용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목표 지점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다. 권연진(2018)에서도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행’ 은유는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묘사하며,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동참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치 담화에서 은유의 사용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송경숙(2000)은 한・미 TV 토론에서 은유와 환유를 분석하며, 전쟁 은유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김길동(2008)은 정당 대변인 논평에서 다양한 은

유를 분류하고, 전쟁 은유의 빈도를 높게 보고했다.

3.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3.1. 분석 대상: 대통령 취임사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8편을 수집하여 소규모 전용 코퍼스를 구축하였다(총 9,974 tokens, 5,120 types, 연설당 평균 1,247 tokens). 텍스트를 추출한 뒤 모든 구두점을 제거하고, 한글·영문·숫자로 이루어진 연속 문자열을 단어 단위로 토큰화하였다. 텍스트 전처리와 통계 계산은 파이썬 스크립트로 자동화하였다.

자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박근혜, 윤석열), 주요 일간지(문재인—서울신문, 이재명—조선일보)에서 수집하였다. 수집한 원문은 언론사 전문 및 당시 영상 기록과 대조하여 정확성을 검증한 뒤, 공식 연설문을 기준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 취임사는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기에 발표된 연설로서, 각 대통령의 정치적 비전과 국정 운영 방향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취임사 8편의 전체 898문장 가운데 개념적 은유가 포함된 문장은 414개(46%)였으며, 은유 총발현 수는 528회였다. 은유 유형별 문장 수는 여행 134문장(1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 95문장(11%), 전쟁 59문장(7%), 생명체·기계 52문장(6%), 질병 45문장(5 %), 빛 23문장(3 %), 가족 19문장(2%), 물·흐름 11문장(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여행’ 은유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질적 담화분석을 통해, 김영삼에서 윤석열까지의 취임사를 시간 순으로 검토하고, 각 정권별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의 사용 양상과 변주를 분석한다. 정치 담화에서 은유를 연구하기 위해 인지언어학적 관점과 텍스트 분석 기법을 결합하여 진행한다.

1. **텍스트 수집 및 전처리:** 각 대통령 취임사의 텍스트를 수집하고, 정확도를 교차 검증한 다음 소규모 코퍼스를 구축하였으며, ‘3.1. 분석 대상’에

서 서술한 기초적인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성적 분석을 앞두고 데이터에 익숙해지기 위해 주요 주제를 파악하여 문단별로 요약하고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2. **은유 표현 예비 코딩:** 각 취임사에서 문장 수의 20%를 무작위로 추출(총 180문장)하고, Pragglejaz Group(2007)와 Steen et al.(2010)의 MIPVU 절차를 한국어 담화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즉 (1) 표층 의미와 문맥 의미를 구분하고, (2) 두 의미 간 불일치를 확인하여 (3) 불일치가 있을 때 은유로 판정하였다. 예비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건축・전쟁・생명체・질병・빛・가족・흐름 등 8개 범주를 정의하고 예시・경계 사례를 포함한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3. **근원 영역별 분류 및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 하위 유형 도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표현은 참고 용도로만 기록하고, 관련 표현은 '여행자'・'목적지'・'길'・'장애물'・'이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사상 관계를 파악하였다.
4. **본 코딩:** 전체 코퍼스에 대해 코드북을 적용해 일괄 태깅하였다. 은유 후보 표현은 (i) 예비 코딩에서 확인된 핵심 어휘 412개 사전을 바탕으로 Python regex 스크립트로 1차 추출하고, (ii) 연구자가 문맥을 확인하며 최종 범주 태그를 부여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애매한 사례는 메모로 기록해 기준을 수정・반영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은유 예시는 대표적이고 맥락이 분명한 문장을 발췌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며, 각 예시에서 대통령명과 연도도 함께 표기하였다(예. '김영삼(1993)').

4. 분석 결과

4.1.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 하위 요소별 사례

4.1.1. '여행자'(정치 주체)로서의 국가・국민・대통령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요소는 정치 주체로서의 '여행자'이다. 각 대통령은 국가, 국민, 그리고 본인을 여정의 주체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김영삼(1993) 취임사에서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차게 함께 달려갑시다"라는 구절에서 국가와 국민을 함께 여정에 나서는 주체로 형상화하고 있다. 김대중(1998)은 외환위기라는 장애물 극복을 위한 여정에서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선두자'로 설정하고 국민은 그 뒤를 따르는 '동반자'로 그렸다.

노무현(2003)과 이명박(2008)의 취임사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난다. 노무현은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전진해야 합니다"라며 국민과 대통령이 수평적인 관계로 묘사되었고, 이명박은 "국민이 합심하여 떨치고 나서면 해낼 수 있습니다"라며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

박근혜(2013)는 '국민행복'을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정부를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을 함께 가는 동행자로 규정한다. 문재인(2017)은 정치적 분열 상황 속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라며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고 있다. 윤석열(2022)은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표현으로 '여행자 집단'으로서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재명(2025)은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라며 스스로를 여행자로 설정하면서도, 이어진 문장에서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라며 목적지를 향한 길에 청자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분석 결과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행자'로서의 정치 주체가 대통령과 국민을 포함하며, 시기마다 구체적인 표현이나 강조점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주화 이후 시기에는 대통령이 '선두자'로서 우위에 서기보다는 '동반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1.2. '목적지'(정치적 목표)의 설정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목적지', 즉 '어디로, 무엇을 위해 이동하는가'이다. 대통령 취임사는 그 정권의 국가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므로, 목적지 은유가 종종 나타난다. 이 목적지 은유는 국가적 과제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취임사의 핵심적인 미래지향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2013)는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본인과 국민이 함께 갈 여정의 목적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재명(2025)도 "진정한 민주공화

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향하는 여정의 목적지를 설정한다.

목적지 은유는 각 대통령의 취임사가 제시하는 국가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정권마다 구체적인 정책 키워드와 목표가 다르지만, 취임사의 구조상 거의 필수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목표 제시가 반드시 여행 은유를 통해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듯 목적지 은유는 국가의 발전 과정이 미완성 상태임을 함축하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덧씌워 국민을 설득하는 중요한 설득적 기능을 한다.

4.1.3. ‘길/방향’(정책・전략)과 ‘장애물’(위기・문제)의 비유

여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할 것인가”와 그 길 위에 존재하는 “장애물”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책과 전략은 ‘길’ 혹은 ‘방향’으로 은유되며, 국가가 직면한 난제나 장애물은 “걸림돌”, “장벽”, “적” 등으로 지칭된다.

예를 들어, 김영삼(1993)은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할 것입니다.”, 김대중(1998)은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노무현(2003)은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했습니다. 도약이냐 후퇴냐, 평화냐 긴장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라는 발언함으로써 국가 정책 방향을 ‘갈림길’ 위에서 ‘전진’과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서사화한다.

이명박(2008)도 “다음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이라며 갈림길 은유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선택해야할 것을 변화’로 보고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입니다”라며 새 정부가 만들 정책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2017)도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라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데에 ‘길’ 은유를 사용했다.

이재명(2025)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라며 갈림길 은유를 사용했는데,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라며 위기의 극복을 위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라며 국민의 뜻이라는 방향을 갈림길에 놓인 상황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이,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한 ‘길’과 국가가 직면한 위

기나 장애물은 각 정권의 당면 과제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묘사된다. 장애물은 국가 발전을 위한 장애로 설정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4.1.4. '이동'(발전・도약)과 '속도'(전진・재도약) 은유

취임사에서 또 다른 핵심은 국가와 국민이 실제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약", "전진", "달려간다", "함께 나아가자"와 같은 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하며, 이는 여정 은유에서 '이동'에 해당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대통령들은 국가 발전과 개혁, 변화를 이동 은유로 묘사하여 국가 전체가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임을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김영삼(1993)은 "우리는 일찍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이루어 낸 민족입니다. 우리 다시 세계를 향해 힘차게 웅비해 나갑시다"라고 말하며, 과거의 도약 과정을 '이미 경험한' 사례로 환기시키고, 그때처럼 또 한 번 기운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김대중(1998)은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내일에의 도약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됩시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위기 상태에서 '미래'로 뛰어오르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노무현(2003)은 "도약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을 통해,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긴장감을 조성하며, 국가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이동으로 표현한다. 이명박(2008)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새로운 신화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가자"는 표현을 통해, 과거 경제 발전의 성공을 '이미 성취한 전진'으로 호출하는 한편, "세계는 우리를 저만치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도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라며 경쟁에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근혜(2013)는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민감한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여, 국가의 진전에 동력을 제공할 주체가 국민임을 강조한다.

문재인(2017)은 탄핵 사태 이후 과거를 "뒤로 하고" "함께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정의 이동을 통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윤석열(2022)은 국내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한

자유의 확대가 “도약과 빠른 성장”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2025)은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대신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역동적 이동으로 재구성한다. 여기서 ‘끌려간다’와 ‘앞서간다’의 대비는 속도·방향의 주도권을 둘러싼 은유적 대립을 형성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만이 ‘무한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서사를 구축한다.

이러한 ‘이동’ 은유를 통해 취임사는 단순히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넘어서, 국가 발전과 변화가 동적인 움직임임을 재현한다. 이동이 멈추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암묵적으로 설득력을 얻으며, 국민에게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낳는다.

4.2. 정권별·시대별 변주 양상

대통령 취임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치는 여행이다’라는 개념 은유는 모든 정권에서 공통되게 나타나지만, 각 대통령은 이를 자기 시대의 맥락과 필요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했다. 즉, 같은 은유라도 어떤 정치적 기능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 정당화’, ‘미래 비전 제시’, ‘통합적 리더십 형성’ 등으로 다르게 전략화되었다.

4.2.1. 김영삼(1993): “신한국”을 향한 전 국민 질주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독재 종식 후 첫 문민 정부를 출범시키며 ‘신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목적지로 제시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회생 등 내부의 “한국병”을 극복하고 세계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국가적 도약을 강조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달려야만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 낙오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목표 지점인 신한국에 이르는 여정에서 어떠한 고통도 함께 분담하자는 결의와 함께, 모두가 단결된 발걸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출발할 것을 선언했다.

4.2.2. 김대중(1998): IMF 국난 속 ‘재도약’의 행로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라는 국난 속에 취임하여 국가 경제의 “재도약”

을 목적지로 삼았다. 그는 IMF 위기 극복이라는 구체적 장애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금 모으기 운동과 노사정 대타협 등 국민적 역량을 모아 위기를 넘어서자는 서사를 펼쳤다. 취임사에서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개혁과 고통 분담을 통해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다.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선두에 서겠다”고 선언하고 국민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함으로써, 국민 통합이라는 여정 속에 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4.2.3. 노무현(2003):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미래 도약

노무현 대통령은 새 천년의 개혁 과제를 안고 취임하여, 한국 사회가 과거로 후퇴하지 않고 미래로 도약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도약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나라가 서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사적 전환점에서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낡은 지역주의 정치와 권위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동북아 협력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통해 미래로 향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을 참여의 동반자로 여긴 그는 개혁과 통합을 “도약의 디딤돌”로 삼으며, 국민의 지혜와 결단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행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4.2.4. 이명박(2008): ‘선진일류국가’로의 가속 질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여정의 종착지로 삼고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난 60년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여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미래로 가는 길”을 국민과 함께 찾아 열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전진”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이 한 팀으로 국가 발전의 새 장을 열어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내외의 변화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음 60년의 국운”을 결정할 갈림길을 넘어 도약하자는 역동적 서사를 제시했다.

4.2.5. 박근혜(2013):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새 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과”희망의 새 시대 “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부흥과 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을 국가 비

전으로 제시한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만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정부를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가는 동행자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남북 관계에서도 강한 안보를 토대로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고 독려했다.

4.2.6. 문재인(2017): 분열 뒤 ‘나라다운 나라’로의 재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취임사에서 선거 과정의 갈등을 화해시키며 “이번 선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과거의 경쟁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전진”할 것을 촉구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 아래, 대통령과 국민이 동반자로서 함께 국가를 재건하는 여정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사회적 적폐 청산과 분열 극복이라는 어려운 장애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와 공정을 회복하는 길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4.2.7. 윤석열(2022): ‘자유’의 나침반으로 복합위기 돌파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복합위기와 국내 양극화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하였으며, “자유”의 가치를 기치로 국가 재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 그는 국내의 극심한 사회 갈등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루지 않고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 시대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협을 극복하는 여정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은 국민을 위대한 동행자로 호명하며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거센 풍랑을 뚫고 나아가는 항해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4.2.8. 이재명(2025): ‘진정한 대한민국’ 재건의 대장정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위기가 중첩된 혼돈기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국가 대개조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전환의 분기점"에 선 시대 상황을 진단하며, 국민 분열과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새 미래를 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국민을 여정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그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목표 지향점은 정의와 통합이 실현된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과거의 잘못된 질서와 결별하고 국민 통합을 동력 삼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했다.

8개 취임사를 시대적 변주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모든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가 목표를 시각화하고 국민 동참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으나, 세부 변주 방식은 각 정권이 직면한 위기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졌다. 은유 자체는 고정된 표현이 아니며, 대통령 취임사 담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맥락화되고 재구성되는 유연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취임사라는 정치 수사 장르에서 각 대통령은 '여행'이라는 공통된 틀을 자기만의 언어로 업데이트하며, 위로는 국가 비전과 난관 극복의 서사를 제시하고 아래로는 국민을 하나로 동행시키는 리더십의 담론을 구축한 것이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김영삼(1993)부터 이재명(2025)까지의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하여, 그 안에 나타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의 구현 및 변주 양상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이 은유가 대통령 취임사라는 특수한 담화 장르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그 정치적, 수사적 의의를 논의한다. 특히 (1) 취임사의 장르적 특성과 여행 은유 간의 상호작용, (2) 이 은유 전략의 설득 효과와 잠재적 한계, (3) 정치 담화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우선, 대통령 취임사의 장르적 특성이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와 긴밀하게 결합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취임사는 국가 원수가 새 임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사로, 국민과 세계에 미래 비전과 정책 기조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상징적 텍스트이다. 이러한 의례적 성격은 필연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언어 전략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어 내며,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호소해야 한다. 이때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는 다소 추상적인 국가 비전과 과제를 '여정'이라는 시공간적 스키마

로 구체화한다. 대통령과 국민은 '여행자'라는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고, 장애물은 '극복해야 할 통과 의례', 국가 발전 목표는 '도달해야 할 목적지'로 재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정책적 수사는 이야기적·서사적 설득력을 갖추게 되고, 청중에게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된다.

이 은유 전략의 설득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위기나 과제(부정부패, 외환위기, 분열·갈등, 대외적 압력 등)를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장애물'로 형상화함으로써, 극복 의지를 높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심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기 IMF 외환위기를 "함께 건너야 할 힘든 길"로 표현하거나, 노무현 정부 시기 동북아 구도를 "새로운 전환점에서 갈림길"로 묘사한 사례들은 위기를 회피할 수 없는 난관이자 동시에 목표로 가는 발판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부여한다.

둘째, 낯선 미래 비전이나 개혁 과제를 '목적지'로 구체화하여, 국민에게 "그곳에 도달하면 더 나은 삶, 더 공정한 사회, 더 큰 번영이 보장된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각 대통령이 선언한 신한국(김영삼), 재도약(김대중), 선진일류국가(이명박), 국민행복시대(박근혜), 나라다운 나라(문재인), 국제사회의 책임국가(윤석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재명) 등의 목표 지점 설정은 국민 동참을 유도하는 수사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대통령과 국민을 수평적인 동행자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리더십을 권위주의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길을 떠나는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담화에서 지향하는 '통합의 리더십'과 잘 맞아떨어지며, 국민 통합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 취임사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은유 전략이 현실 정치에서 갖는 한계를 간과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서사를 앞세워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정책적 설계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 힘을 합쳐 걸어가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도식이 반복될수록,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복잡성이나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희생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 글로벌 금융위기, 대외 무역질서의 변화, 국내 양극화 등의 중층적 요인이 "장애물"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을 '길잡이'로, 국민을 '동반자'나 '동행자'로 설정할 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 동원을 시도하거나 행정력을 사용해 갈등을 억누를 경우, 은유의 본래 의도였던 포용적 리더십이 오히려 권위주의적 통치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이처럼 여행 은유가 국민 동원을 정당화하거나 책임 소재를 분산하는 방식

으로 사용될 위험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대중, 언론, 정치 엘리트 집단이 은유를 어떻게 수용하고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더 깊이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단순한 언어적 장식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요구와 담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핵심 수사 전략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대통령 취임사라는 장르 분석에 국한되었지만, 그 도출된 함의는 정치 담화 연구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통령 담화는 고도로 의도된 정치적 발화로, 국가 비전과 지도자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텍스트이다. 따라서 취임사에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빈번히 사용되는 맥락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정치 수사학이 복합적인 갈등 환경 속에서 통합을 연출하고, 추상적 과제를 서사적으로 풀어내며 대중에게 설득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한정된 담화에만 집중된다는 한계점에서 착안해 이 은유가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떻게 재활용되거나 다른 은유와 결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추적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특정 지역의 언어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정치 담화 전략인지를 규명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가 한국 대통령 취임사라는 장르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설득적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적 도구로 작동했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정치 담화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권연진 (2018).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정치는 여행이다' 은유에 관한 연구. 「코기토」, 85권, 291~318.

김길동 (2008). 정치 담론에 나타난 은유 표현 분석: 정당 대변인 논평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5권 2호, 129~151.

김상진 (2018). 한미 정치담론에 나타난 '국가' 개념은유 대비 연구: Lakoff의 가족 모델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81권, 49~72.

배승호 (2001). 인쇄매체 정치담화에 나타난 은유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2권 2호, 131～150.

임동휘 (2017). <독립신문> 영문판에 나타난 '국가' 은유 연구. 「언어학」, 77권, 99～155.

조유진 (2019). 한국과 미국의 정치담론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Campbell, K. S., & Jamieson, K. H. (1985). *Deeds done in words: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genres of govern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rteris-Black, J. (2004). *Corpus approaches to critical metaphor analysis*. London: Palgrave Macmillan.

Charteris-Black, J. (2011). *Politicians and rhetoric: The persuasive power of metaphor* (2nd edi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Cox, J. L. (2012). Politics in motion: Barack Obama's use of movement metaphors. *American Communication Journal, 14*(2), 1-13.

Dávid, G., & Furkó, B. (2016). The journey metaphor in mediatized political discourse. *Acta Universitatis Sapientiae, Philologica, 7*(2), 7-20.

Lakoff, G. (2002). *Moral politics: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i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Chelsea Green.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o, J. S., Riggio, R. E., Levin, S., & Reese, R. (2005). Presidential leadership and charisma: The effects of metaphor. *The Leadership Quarterly, 16*(2), 287-294.

Pragglejaz Group. (2007). MIP: A method for identifying metaphorically used words in discourse. *Metaphor and Symbol, 22*(1), 1-39.

Santa Ana, O. (1999). "Like an animal I was treated": Anti-immigrant metaphor in US public discourse. *Discourse & Society, 10*(2), 191-224.

Song Kyong-Sook (2000). Metaphor and Metonymy in Korean and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Discourse and cognition 7*(1), 35-62.

Steen, G. J. (1999). From linguistic to conceptual metaphor in five steps. In Raymond W. Gibbs, Jr. & Gerard J. Steen (Eds.),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pp. 57-77).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Svetonosova, T. (2022). *Metaphors in American presidents' inaugural addresses.* [Preprint]. SSRN. (2001－2021). Conference Presentation, *MGIMO-University,* Moscow: MGIMO Cultural Centre.

오수빈
85721 1103 E. 2nd St・Harvill, Room 241 Tucson, Arizona, U.S.A
Ph.D. Studen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eaching Program, University of Arizona
전 화: +01-520-500-6698
이메일: osubin@arizona.edu

논문접수: 2025년 5월 15일
수정완료: 2025년 6월 13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16일